

A204지리바꽃(*Aconitum chiisanense* Nakai)의 분류학적 실체

오상훈*, 박종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지리바꽃(*A. chiisanense*)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지리산에서 채집된 개체를 근거로 Nakai에 의해 기재된 한국산 고유종이다. 본 종은 형태적으로 유연관계가 깊은 그늘돌쩌귀(*A. uchiyamai* Nakai), 세잎돌쩌귀(*A. triphyllum* Nakai), 짝눈바꽃(*A. proliferum* Nakai), 개짝눈바꽃(*A. pseudoproliferum* Nakai), 진돌쩌귀(*A. seoulense* Nakai) 및 투구꽃(*A. jaluense* Kom.) 등과 함께 *A. uchiyamai* complex에 속한다. 본 complex의 분류군들은 대부분의 주요 식별형질에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의 변이를 나타내어 그 한계 및 위치 설정, 동정에 있어 많은 분류학적 혼란이 누적되어 왔으며, 학자에 따라 지리바꽃을 비롯한 이들 종 모두를 동일 분류군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A. uchiyamai* complex의 종 생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지리바꽃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잎의 외부 형태, 핵형 및 소화경에 분포하는 털의 미세구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리바꽃은 잎이 세열하며 각 열편의 선단이 점첨두인 점에서 나머지 분류군들과 구분되었으며, 염색체수는 $2n=16$ 으로 $2n=32$ 인 본 complex의 나머지 분류군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리바꽃의 소화경에는 나머지 분류군들과는 달리 짧고 기부가 확대된 곤봉상의 선모가 분포하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리바꽃은 독립된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A205해부학적 형질에 의한 한국산 화살나무속(*Euonymus* L.)의
 분류학적 연구

김주환*, 김윤식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조사된 한국산 화살나무속 16분류군에 대하여 잎, 엽병, 동아의 해부학적 형질을 중심으로 분류학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잎은 책상조직과 해면조직의 배열양상에 따라 일열책상조직형과 이열책상조직형의 2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엽병은 중앙유관속과 좌우상부에 위치한 능각의 돌출형태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동아는 인편의 배열형태에 따라 4유형으로, 아엽의 배열상태와 인편매수에 따라 5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조사된 분류군에서 상록성의 잎과 낙엽성의 잎은 책상조직의 배열 층수에 따라 뚜렷히 구분되는 뚜렷한 불연속성을 나타내었고, 엽병은 좌우상부에 위치한 능각의 형태가 회나무절에서 수평형으로, 사철나무절에서 무익형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보여 각 절을 규정하는 유용한 식별형질로 판단되었다. 한편 동아내의 인편과 아엽의 배열양상에서 화살나무절은 5쌍의 인편을 갖고 아엽이 전부 내곡하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사된 전분류군에서 기본적으로 인편과 아엽이 한쌍씩 십자대생하는 공통점을 나타내어, 화살나무절을 제외한 다른 절을 구분할 수 있는 절의 식별형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아의 형태와 내부구조에 따라 속을 2군 6열로 구분한 Nakai(1941)의 견해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